

胡適新詩運動考

金 惠 經

〈 目 次 〉

一. 머리말	1. 《嘗試集》概說
二. 新詩의 탄생	2. 胡適의 新詩에 담긴 思想內容
1. 新詩탄생의 역사적 배경	(1) 樂觀主義
2. 문학혁명 이론의 醒發—	(2) 經驗主義
미국유학 시절의 토론과 창작	(3) 說理, 人道主義
3. 초기의 新詩	(4) 愛情詩
三. 新詩創作의 理論	3. 胡適詩의 特징과 결점
四. 新詩創作의 實際	五. 胡適新詩의 영향

一. 머리말

胡適은 中國新詩의 開創者로 불리운다. 그는 이십대 초반인 1915년 무렵부터 白話詩를 연구하고 창작하여 新詩의 활로를 개척했으며, 또 그 결과로서 中國 최초의 白話詩集인 《嘗試集》을 문학사에 남겨 놓았다. 문학혁명의 前夜인 1916년 7월부터 1917년 9월까지의 기간동안 白話詩의 실

* 대전공업대학교 중국어과 전임강사

험실엔 그만이 홀로 자리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평가를 내리는데 대부분의 문학사가들은 이의를 달지 않는다. 本稿는 胡適이 新詩運動을 일으키게 된 동기와 배경, 그의 이론 및 실제창작, 후세에 미친 영향관계 등에 대해 간략히 논해보려 한다. 胡適 아래로 白話詩는 新詩·新體詩·白話詩·語體詩 등등 갖가지 명칭으로 불렸지만, 여기서는 舊體詩와는 대비되는 새로운 형식과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뜻을 담고 있는 新詩로 통칭하기로 한다.

二. 新詩의 탄생

1. 新詩탄생의 역사적 배경

중국문학이 발전해온 경향으로 볼 때, 新詩의 출현은 어느 정도 뜻밖의 이변으로 간주되고 있다. 詩經의 國風으로부터 漢魏樂府·宋詞·元劇·明清의 小說에 이르기까지 주요한 문학형식은 모두 民間에서 일어나 오랜 演進과정을 거친 다음에서야 비로소 문인들에게 수용되었다. 胡適은 이러한 文體轉變 과정을 〈中古文學概論序〉에서 새로운 문체는 모두 “들판이나 전답 사이에서” 발생했다.”¹⁾라고 말했으며, 이는 또한 文學史의 ‘피할수 없는 ‘공식’²⁾이란 말로도 설명하고 있다.

그렇지만 新詩라는 새로운 문학형태는 ‘들판이나 전답’에서의 발생이란 전통적 방식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고, 젊은 미국유학생의 손에서 태어났고, 文人學士의 서재에서 성장하는 과정을 밟았다. 만약에 胡適이 말한 것처럼 “文學의 새로운 형식은 모두 民間에서 나왔다.”는³⁾ 말이 중국문학사의 비켜갈 수 없는 공식이라면, 그 자신이 일구어낸 新詩만은 예외로 두어야 할것이다. 이러한 점은 胡適도 〈逼上梁山〉이나 〈嘗試集自序〉 등에서 기술하고 있듯이, 新詩의 發興은 民間이나 人民大眾과 거의 관련이

1) 胡適, 《胡適文存》2集, 2券, p. 496.

2) 胡適, 〈胡適選註的詞選自序〉, p. 5.

3) 上同.

없고, 단지 몇 명의 미국 유학생이 서로 토론하고 논쟁하는 가운데 우연히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胡適은 신문학운동을 회고하면서 왜 白話詩를 창작하게 되었는지 아래와 같이 말했다.

그들(胡適의 미국유학 당시 친구들)은 白話로 시를 쓸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도무지 납득하려 들지 않았다. 이런 종류의 회의는 白話에 대한 국부적인 회의일뿐만 아니라, 白話文學 전체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였다. 그들의 마음속에선 詩文만이 문학의正宗이고 소설과 회극은 아직도 결가지(結門小道)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은 白話詩文만을 부인한다고 했지만, 이는 白話야 탈로 중국문학의 유일한 工具라는 사실을 부인함에 다름 아니었다. 그래서 나는 白話를 사용하여 詩의 장벽을 경복하리라고 마음먹게 되었다. 이것은 白話詩가 가능한한에 대한 실현이 아니라, 白话야 탈로 중국문학의 모든 장르에 있어서 유일무이한 工具임을 증명하려 함이었다.⁴⁾

중국의 전통시는 五四運動 발발이전에 이미 그 생명력을 잃고 있었다. 시인 威克家는 신문학운동이 일어나기 이전의 시가에 대해, “우수한 古典詩歌에서 발현되던 時代精神과 人民性을 다시는 찾아 볼수 없게 되었다.”⁵⁾라고 평하고 있다. 시인의 명함을 가진 사람은 많았지만, 그들의 시는 단지 古人을 모방하고 美調格律을 따지기에만 열중했으므로 그 痴朽한 내용이란 시대적 요구와 한참 동떨어진 것이었다. 清末에 이르러 夏曾佑·譚嗣同 등이 詩界革命에 뜻을 두었다. 그러나 그들이 지은 ‘新詩’는 다만 새로운 名詞들을 모아 異趣를 표현함에 불과한 것이었고, 그 형태는 舊詩에서 조금도 벗어난 바가 없었다. 그래도 黄遵憲 같은 이는 비교적 구체적인 혁신방안을 제시하여 ‘俗話’로 시를 쓰는, 이른바 ‘말하는 대로 글로 적는다.(我手寫我口)’라는 새로운 주장을 하기도 했다. 그는 또한 새로운 思想과 材料를 試用하여 “古인이 알지 못했던 사물, 열지 못했던 境界”를 시 안에 삽입시킬것을 주장했다.⁶⁾ 이와 같은 詩界革命은 어떤 의미로는 新詩革命이 일어나기 이전 짧은 기간 동안 발생했던 과도적 현상이지만, 1918년에 일어난 新詩革命에觀念上으로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4) 胡適, 〈中國新文學運動小史〉, p. 62.

5) 威克家, 〈中國新詩選導言〉, p. 2.

6) 胡適, 〈五十年來中國之文學〉, 〈胡適文存〉二集, 一券, p. 213.

말할 수 있다.

新詩의 발생에는 외국문학의 영향도 무시할수 없는데, 梁實秋 같은 이는 “외국의 영향이야말로 白話文運動의 도화선”⁷⁾이라고 말했을 정도로 치켜세워 평가했다. 예를 들어 典故나 진부한 느낌의 성어는 사용하지 말자는 주장은 미국의 印象主義者들이 내세웠던 시를 위한 여섯가지 조항에 이미 포함되었던 내용이며, 당시에 새로 정립된 標點이나 分段分行의 형식도 모두 외국의 문자체계를 모방한 것이었다. 그리고 외국문학의 번역 소개 또한 신시의 발생에 일조했다고 말해진다. 胡適이 新詩를 실험할 때, 그 견해에 있어서 영국의 潘辟시인 및 미국의 이미지즘의 영향을 받았음은 그의 저작에서 여러 차례나 밝히고 있다.

胡適은 또한 중국의 전통 詩詞에서도 심대한 영향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다. 시에 있어선 元稹·白居易·袁枚 등이 그의 탐구대상이 되었고, 詞에 있어선 내용이 鏡近한 小詠을 즐겨 읽었는데, 蔡軾·辛棄疾 같은 작가들을 좋아했다. 이들은 모두 참신한 내용과 새로운 문체의 창립으로 문학사에 지대한 족적을 남긴 문인들이었다. 그 외에도 원래 소설책 읽기를 밥먹기보다 좋아했던 胡適은 舊式白話소설에서 인용되고 있는 通俗淺顯한 詩詞에서 신시에 대한 많은 영감을 얻었고, 또 滑稽적 의미를 시로 표현한 打油詩나 歪詩에 흥미를 느껴 그것을 흡내낸 모방작을 많이 지었다. 그의 시 중에서 비교적 초기에 지어진 新詩들은 絶句·歌行·小令·中謂등 전통시 가의 형식을 여전히 답습하고 있는데, 이는 胡適이 전통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요인이 합치되고 시간적으로는 백화문사용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新詩는 이제 태어나지 않을수 없는 시점이 되었다.

2. 문학혁명 이론의 體積 — 미국유학 시절의 토론과 창작

근대 유럽에서 있었던 문학혁명(라틴어를 폐지하고 구어체의 민족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길면 백년, 짧아도 수십년의 기간이 필요했었다. 그런데 중국의 문학혁명은 앞뒤로 삼년 정도의 짧은 시간 내에 이루

7) 朱自清, 〈中國新文學大系詩集導言〉, p. 1.

어려 세계문학사에 하나의 경이로 기록되고 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었던가에 대해서는 주의하고 탐구하려는 이가 별로 많지 않다. 1917년 문학혁명이 일어난 이후의 떠들썩한 분위기에 대해서는 탐구하려는 사람이 많지만, 1915년에서 17년까지의 醒靄期는 별다르게 조명된 적이 없다. 그러나 胡適이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을 때 이뤄졌던 토론과 창작은 문학혁명의 터놓을 수 없는 动因으로 파악되고 있으므로, 이 시절을 간략하게나마 살펴보는 것은 운동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적지 않은 도움을 준다. 그러나 본고의 목적은 胡適의 신시운동을 살피는데 있으므로, 여기서는 그의 新詩觀이 어떤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는지를 알아보는데 그치기로 한다.

胡適은 코넬대학에 재학하고 있을 무렵부터 이미 중국 文言문자의 장래나 문학개량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다. 1915년 그가 문학혁명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불과 스물 네살의 청년에 지나지 않았지만, 중국의 고전문학 뿐만 아니라 서구의 문학사조에도 상당한 조예를 갖추고 있었다. 그가 미국에서 친구들과 함께 문학논쟁을 벌이고 있을 때, 중국 국내는 혼란한 정치상황으로 말미암아 문학활동이 극히 위축되어 급변하는 사회분위기와는 걸맞지 않은 음풍농월식의 고답적 분위기의 작품들만 양산되고 있었다. 여기서 하나의 가정을 얘기할 수 있겠다. 胡適이 그 당시 미국에 있지 않고 국내에 있었더라면 그의 성격으로 비춰보아 정치적인 혁명운동에 종사하느라 문학같은 한가로운 화제에 신경쓸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는 중국어와 그 문학의 진로에 있어서 하나의 우연한 다행일 수도 있다.

그가 미국에서 벌였던 문학논쟁은 대체로 두 시기로 구분지어 말할 수 있다. 前期는 그가 文言의 사용을 포기하지 않았으면서도 한편으론 白話를 사용하여 내용있는 문학을 창작하자고 주장한 시기이다. 이 때는 대략 1915년 8월에서 1916년 6월까지인데, 이 시기의 생각들은 그의 친구들에게 많은 공감과 찬성을 불러 일으켰다. 後期는 1916년 7월 이후의 기간으로 문학창작은 일률적으로 白话만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시기이다. 이 때 그는 “문학혁명은 앞뒤 순서가 바로 되어야 한다. 먼저 문자체계의 해방이 이뤄져야만 새로운 사상, 새로운 정신을 담아낼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면서 文言의 전면적인 폐지를 주장하는 획기적인 제안을 했다. 그의 이런 생각들은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고, 192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토론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 기간은 胡適의 문학사상이 다져져서 그의 사상과 견해에 장족의 진보가 있었던 시기라고 말할 수 있다.

두 번째 기간동안 토론의 주대상은 ‘백화시는 가능한 것인가’라는 주제였다. 이는 ‘고문이 백화로서 완전히 대치될 수 있는가’라는 문학혁명에 대한 회의에 찬 반문과 곧바로 연결되는 사안이었다. 장기간에 걸친 토론과 서신왕래로 胡適의 친구들(梅光迪·任叔永·唐翠黃·楊杏佛·陳衡哲 등)은 시를 제외한 다른 영역에선 백화 사용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고전적 소양이 남달랐던 그들은 고문이 완전히 죽어버려 폐기해야 마땅한 문자라는 데에는 도무지 동의하려 들지 않았다. 특히 미국에 新人文主義를 뿌리내린 어빙 배비트(Irving Babbitt, 1865~1933)가 가르치는 하바드대학에서 수학한 梅光迪은 胡適의 난적이었다. 그는 민간문학의 가치라든가, 백화로 작문하는 문제에는 모두 동의하면서도 그 한계를 분명히 구분지으려 했다. 그는 “소설이나 詞曲은 백화로 쓸수 있지만, 문장의 體裁가 다르기 때문에 詩文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한결같이 고수하려 들었다. 그의 논조에 따르면, 백화문의 생기발랄한 특성은 評話·故事·장편소설같은 장르에서만 적용될 수 있고 시에 있어선 절대 안된다는 것이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시를 제외한 어떤 문학장르에서도 백화를 사용할 수 있다는 논리가 되었다. 백화문은 문학의 어떤 분야에도 적합한 문자형태지만 시에서만 사용이 불가하다고 거의 결론이 난 상태에서 胡適은 새로운 결심을 하게되었다. 문제의 관건은 백화를 도구로 하여 ‘詩’와 ‘文’을 쓴다는 점에 있었다. ‘문’의 문제가 이미 해결났으므로, 남아있는 것은 ‘시’의 관문을 돌파하는 일 뿐이었다. 胡適은 당시의 상황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梅光迪이 말하는 ‘文’은 古文辭類纂 같은 책에서 말하는 文(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美文)을 가리키고 있었다. 여기에 대해 나는 강한 확신을 갖고 있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몇년 전에 여러 편의 白話議論文을 써 보았고, 그 결과 백화문의 성립은 어렵잖은 일이라는 결론을 얻었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의 정점은 ‘백화로 시를 지을 수 있는가’하는 문제에 귀착되었다. 백화문

학을 위한 싸움에서 칠필할은 이미 이긴 것이나 다를 없고, 이제는 시의 보루만이 남았을 뿐이므로 전력으로 싸워 정복하여야 했다. 백화가 시의 왕국을 정복하는 날, 백화문학의 승리는 비로소 완전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므로, 당시 나는 아직 정복되지 않은 이 브루를 치는데 선봉이 되기로 작정하고 전력을 다해 백화시를 짓는 실험을 하기 시작했다.⁸⁾

친구들과의 충돌과정 중에서 胡適이 발견한 것은 梅光迫이나 任叔永 등이 모두 문자의 형식이 문학의 본질을 방해하거나 속박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문학의 정신이나 내용을 개혁하려면, 문자의 형식부터 새로와지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胡適의 생각이었다. 그는 친구들이 반대하는 원인에 대해 곰곰 생각해 보다가 이전의 어떤 시인도 俗字俗語나 實用白話를 사용해 시를 지은 일이 없기 때문이라고 결론내렸다. 이리하여 그는 자기가 그 모범을 보여 직접적인 중령이 될수 있는 백화시를 창작함으로써 梅,任등을 설복시키겠다고 마음먹고는 그 실험을 시작했다.

이리하여 1916년 7월 22일, 胡適이 최초의 백화시를 지어 친구들에게 보임으로써 백화시의 가능성에 대한 논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일천여자에 달하는 〈答梅觀莊〉이란 백화시는 梅光迫의 ‘文字豈有死活’ 이론을 통박하는 내용이었으므로 梅光迫은 이 시를 보자마자 화부터 벌컥 냈고, 任叔永은 “足下의 이번 실험의 결과는 완전한 실패로 보인다. 足下의 작품이란 것은 백화로 쓰여졌고 韻도 갖추고 있긴 하지만, 시라고는 도저히 부를 수 없다.”⁹⁾라고 말하며 그 나름대로 胡適의 실험은 실패했다고 결론지었다. 梅光迫은 “시의 언어는 반드시 장기간 단련된 美文이라야 한다.”라는 논리에 입각하여 “古字를 다시 사용하여 글자 수를 늘리자.”¹⁰⁾고 주장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 胡適은 견결히 반대하고 나섰으며, 문학을 제창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梅光迫과는 다른 의견을 보였다. 胡適은 문학혁명이 민간문학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그것을 보급시키는 것이 문학인의 최대 과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오늘날에 있어서 문학은 소수 문

8) 胡適, 〈逼上梁山〉, 《中國新文學運動小史》, p. 61.

9) 《胡適留學日記》第四冊, p. 81.

10) 《胡適口述自傳》, p. 150.

인들의 사유물이 아니므로 마땅히 그것을 보급시켜 최대 다수의 국민들이 모두 즐길수 있는 일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우리들 당대의 시인과 작가들은 이른바 俗語俗字를 단련시켜 그것들의 지위를 제고시킴과 아울러 시가문학 안으로 끌어들여야만 한다.”¹¹⁾고 말했다. 그러나 梅光迪은 중요한 것은 문학의 수준을 제고시키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문학이 소수문인의 사유물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발상은 하나의 이상일 따름이라고 논박했다. 그는 “실제로 문학의 소양은 사람마다 모두 타고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이 문학적 수양을 쌓는다 해서 뭔가를 이뤄낼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문학이란 속명적으로 貴族文學일 수 밖에 없다.”¹²⁾고 말했다. 胡適의 혁명사상은 梅光迪의 이러한 귀족주의적 인문주의에 부딪쳐 확신을 갖는 경지로까지 발전하진 못했다. 梅任 등의 반응이 너무 강렬한 나머지 胡適이 미국에 있는 동안은 계속 新詩의 성공을 자신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가 귀국한 다음 사정은 크게 달라졌다. 胡適의 白話에 대한 선전적 견해는 陳獨秀나 錢玄同 등 개혁주의자들의 도움에 힘입어 중국문학혁명의 발단이 될 수 있었고, 곧이어 혁명운동의 물결이 온 중국땅에 넘치게 되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결과는 온전히 신시의 發難과정에서 기초된 것이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니다.

3. 초기의 新詩

몇번의 우여곡절 끝에 1918년 1월의 《新青年》 잡지 四卷一期에는 처음으로 白話詩가 실리게 되었다. 발표된 작품은 胡適의 〈景不徙〉·〈一念〉·〈鵠子〉·〈人力車夫〉의 4수, 沈尹默의 〈鵠子〉·〈月夜〉·〈人力車夫〉의 3수, 劉復의 〈相隔一層紙〉·〈題女兒小蕙周歲的造像〉 2수 등 모두 아홉 수인데, 이 시들은 모두 中國新文學의 선구적 작품이 되었다. 그 중에서 호적의 〈一念〉을 예로 들어 초기 新詩가 舊詩에 비해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 본다.

11) 〈逼上梁山〉, p. 55.

12) 〈梅光迪文錄〉, p. 11.

나는 태양을 회전하는 지구를 비웃는다.
 고작해야 하루에 겨우 한 번 자전할 뿐;
 지구에 감겨드는 달빛도 서로를 예쁘하게만 하지;
 밤하늘에 뿌려진 억천만 개의 별;
 궤도로만 운항하는 처량한 신세라네;
 일초에 오십만리나 간다는 전기라도,
 내 걸걸한 그리움에 비하면 너무 늦어!
 나의 그리움은
 그대 사는 곳목에 들어 섰다가도,
 부끄러 금새 나오기도 하고;
 허드슨강변의 추억을 새기다가,
 문득 카이저호숫가를 거닐기도 한다.
 내 사무치는 그리움이라면,
 일분에 지구를 삼천번이라도 뛰들수 있다네.
 (我笑你繞太陽的地球，一日夜只打得一箇回旋；
 我笑你繞地球的月亮，總不會永遠圓圓；
 我笑你千千萬萬大大小小的星球，總跳不出自己的軌道線；
 我笑你一秒鐘行五十萬里的無線電，總比不上我區區的心頭一念！
 我心頭一念：
 才從竹竿巷，忽到竹竿尖；
 忽在赫貞江上，忽在凱約湖邊；
 我若貞宿寄刻骨的相思，便一分鐘繞過地球三千萬轉！)

현대시의 안목으로 평론한다면, 위의 시는 내용상 좋은 시라고 할 수도 없고 시의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당시로선 이런 시의 창작이 천지개벽이라 부를수 있을 만큼 새로운 모험이었다. 위의 시는 대 글자, 대 구절마다에 가시밭길을 혜치는 어려움이 담겼다고 해도 부족할 정도로 형식과 내용 모두에 대담한 실험정신이 발휘되고 있다. 내용에 있어선 地球·軌道線·無線電같은 과학시대의 새로운 용어들이 시에 침가되었고, 형식에 있어선 율시에서 쓰이던 오언이나 칠언의 경제된 양식을 철저히 파기하고 산문식의 長短句를 사용하였다. 보수적인 문인들이 胡適의 실험에 관해 어떤 비판을 가하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내용과 형식의 新詩는 한 번 나타나자 마자 곧바로 문단의 쟁아가 되었고, 舊詩는 종래의 지위와 기세를 다시는 회복하지 못했다.

三. 新詩創作의 理論

胡適이 文學革命을 구상할 때 처음 내걸었던 표어는 “시의 혁명은 作詩를 作文같이 함에서 비롯된다。(詩國革命何自始,要須作詩如作文)”였다. 이론 바 “시를 짓되 산문처럼 짓자(作詩如作文)”는 주장의 요지는 내용이 ‘통(通)’한 연후라야 비로소 ‘좋은(好)’ 시가 나온다는 데에 있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미국의 여류시인 앤미 로웰(Amy Lowell)이 표방한 자유시를 선호했다. 그렇지만 그는 詩作에 있어서의 지나친 자유가 독자들에게 호감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도 아울러 인정하였다. 자유롭기만 해서는 시가 될 수 없는 법이고, 또 이런 종류의 작품은 대부분 유치하지 않으면 조잡하게 여겨지기 마련인 것이다. 그 이유로는 두 가지를 들 수가 있다. 첫째로 시에 있어서의 暗示나 ‘무언중에 그 의미를 다하는(盡在不言中)’ 시적 기교를 도외시하기 때문이고, 둘째로는 어떤 종류의 시라도 시의 기본은 리듬이란 사실을 간과하기 때문이다.¹³⁾ 하물며 전통시의 세력이-아직 수그려들지 않은 시점에서 시의 새 언어를 찾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작업일 수가 없었다. 많은 시인들이 뭔가 틀렸다고 느끼면서도 舊詩詞의 가락을 버리지 못하고 내용의 사활이나 논할 때였으므로, 胡適이 만들어낸 가락 역시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그의 신념은 단지 “옛 날부터 내용이 통하지 않는 좋은 시란 있질 않았고, 읽어 이해되지 않는 좋은 시도 없었다.”¹⁴⁾는 데에 있어서, 고전문학 안에서 白話詩의 선구를 찾아낼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가 제시한 예로는 唐朝의 王梵志, 寒山 등의 시가 있는데, 언어문자의 표면적 近似함 만으로 白話詩와 연결지으려는 형식주의적 발상이란 비판도 있지만, 그러나 이는 호적이 제창한 白話文學史觀의 중요한 이론적 증거가 되어 주었다. 胡適은 자유로운 형식 아래 진취적이고 낙관적인 정신과 새로운 사상을 구현하는 것을 ‘詩體의 解放’이라고 불렀다. 그는 논문 〈談新詩〉에서 문학혁명 이후로

13) 林語堂, 〈五四以來的中國文學〉, 《現代中國文學史話》, p. 161.

14) 胡適, 〈五十年來中國之文學〉, 《胡適文存》二集一卷, p. 213.

나타난 '詩體解放'과 白話新詩의 문단입성을 '신해혁명 이후의 가장 큰 사건'으로 치면서 예증을 들어 가며 꿈진하고 세밀한 감정 묘사, 소박하면서도 진실된 景物묘사 등은 新詩만이 해낼 수 있는 영역임을 이해시키려 하고 있다. 胡適은 해방된 문체에 또 "풍부한 재료, 정밀한 관찰, 고상한 이상, 복잡한 감정(豊富的材料·精密的觀察·高深的理想·複雜的感情)"¹⁵⁾ 등이 부수되어야 비로소 시의 세계에 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범론적인 사항들 외에 〈談新詩〉에는 좀더 구체적인 주장들도 보인다. 병도 없이 앓는 소리를 내지 말자는 소극적인 것으로부터 낙관주의나 이상주의를 시에 입력시키자는 적극적인 면에 이르기까지, 그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시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였다.

胡適은 新詩의 운율 문제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다. 그는 "신시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신시에 음절이 없다고들 공격한다. 그리고 어떤 신시의 작자들은 불행히도 신시의 음절에 실제로 주의하지 않는데, 이는 모두 잘못이다"라고 말하며, 신시에 반대하는 사람들 이야기로 "음절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¹⁶⁾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오히려 舊詩詞를 쓰는 사람들은 脚韻과 句節중의 平仄만을 알 따름이고 사람들의 언어 사이에 녹아있는 자연스런 음절, 자연스런 어울림은 알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그래서 신시는 옛시의 격률들을 혁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그 나름의 근거에 준해 한 말이었다. "시에 있어서의 음절은 두 가지 중요한 요소에 의거한다. 첫번째는 語氣의 자연스런 리듬이고, 두번째는 데 구절마다에서 사용되는 글자의 자연스런 어울림이다. 글의 말미에 있는 韻脚와 중간에서 행해지는 平仄만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은 신시의 성립에 매우 큰 역할을 했다. 신문학의 반대파들은 오랫동안 신시를 멸시하는 태도로 일관해왔는데, 그들이 지적한 단점으로 신시는 문자가 奥雅하지 못하다는 것 외에도 음운을 강구하지 않는다는 점이 크게 문제시되고 있었다. 완고한 소수의 고문가들 뿐만 아니라 신문학에 악의를 갖지 않은 다른 많은 사람들까지도 이 때문에 신시를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 이들은 古人이

15) 胡適, 〈談新詩〉, p. 166.

16) 上同, p. 174.

나 古書에만 떠어 韻書에 기록되어 名家들이 사용했던 것이라야 비로소 詩韻이 될 수 있다고 믿은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의 일상 언어생활에서 발견되는 자연스런 리듬이나 어울림이 신시의 바탕이 될수 있다는 주장에는 도무지 납득하려 들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胡適의 견해는 舊詩의 미신인 격률을 타파하고 신시의 작자들에게 창조의 용기를 불어넣는 참신한 이론적 근거가 되었으니, 시대의 대세를 보수세력은 막아낼 수 없었던 것이다.

胡適이 내놓은 신시의 모범은 議論이 담겨 있고, 語氣가 자연스러우며, 文法에서 벗어나지 않는 白話詩였다. 胡適의 〈談新詩〉는 신시의 창작과 비평에서 모범답안으로 빛들어지면서 당시 《新青年》의 여러 동인들에게 받아들여졌고, 《新潮》·《少年中國》·《星期評論》 및 《文學研究會》의 여러 시인들도 대체로 이러한 바탕위에서 시를 써 나갔다.

四. 新詩創作의 실제

1. 〈嘗試集〉概說

胡適이 문학방면에 끼친 공적을 살펴 볼 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부분은 역시 白話詩의 창작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는 처음으로 신시를 실험한 사람이었고, 1920년 3월에 출판된 《嘗試集》은 최초의 신시집이었기 때문이다. 胡適이 그의 시집명을 《嘗試集》이라고 명명함은 宋의 시인 陸游가 “서둘러 하는 실험이 성공한 적은 옛부터 있질 않았다.”(嘗試成功自古無)라고 읊은 데서 인용한 것이었다. 胡適은 이 짓궂의 뜻이 마침 그가 신봉하는 실험주의와 상반된다고 여겼고, 신시의 실험이 끝내 어떻게 결말지어질 것인가를 두고 보라는 의미에서 ‘嘗試’라는 두 글자를 따온 것이다.

《嘗試集》은 세 편으로 나뉘어져 모두 마흔 아홉편의 시를 담고 있으며, 胡適이 신시를 제창하기 이전의 습작인 《去國集》에서 舊體詩 15수를 뽑아 부록으로 실고 있다. 《嘗試集》의 시들은 1916년에서 1921년 사이

의五四運動시기에 쓰여졌지만 다루고 있는 소재들은 지극히 평범하다. 観山玩木의 閑情逸趣를 노래한 작품으로는 〈中秋〉·〈江上〉·〈百字令〉 등이 있고, 閑情詩로는 〈如夢令〉이 있다. 自然風物을 묘사한 시로 〈鶯子〉·〈一顆星兒〉·〈海上〉·〈沁園春〉 등이 있으며, 러시아 혁명이나 신해혁명에서 회생된 인물들을 기리는 시로 〈贈朱經農〉·〈沁園春〉이 있다. 〈去國集〉은 신시창작 이전에 썼어진 舊體詩인 까닭에 작자 스스로도 '죽은 문학'으로 취급하고 있고 사실 그 의의는 대단치 않다. 그 밖에도 의미상으로 상당히 중요한 몇편의 譯詩가 실려 있다.

2. 胡適의 新詩에 담긴 思想內容

(1) 樂觀主義

新詩가 舊詩와 구별되는 이유는 사용된 언어가 白話라는 것 외에도, 종국의 전통시사에선 드물게 보이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정신을 시 안에 구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胡適의 시에서도 가끔은 '서리 질어 해저문 출 모르누나.(霜漫欺日薄)' 라든가 '눈물이 마음따라 흐른다.(淚向心頭落)' 같은 소극적이고 비관적인 탄식이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감정을 자제하고 명랑하고 낙관적인 방향으로 나가려는 분위기였다. 1918년에 쓰여진 〈樂觀〉과 〈上山〉 두 수의 시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장 잘 반영하는 시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시들은 격정적이고 분투적이란 긍정적 의미를 주는 외에, 胡適은 시를 쓸 때조차 그의 사상을 선전하는 기회로 삼으려 한다는 부정적인 느낌을 주기도 한다. 그가 시에서 表達하고자 하는 바는 주로 사상이었고 감정이 아니었는데, 이 또한 신사조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朱自清은 "낙관주의는 옛 시에선 몹시 드물었지만 胡適이 외래사조의 영향을 받아 새로운 境界로 확립시켜 놓으니, 康白清 같은 시인은 그 까지 거기에 동조했다."¹⁷⁾라고 말함으로써 胡適의 낙관주의를 호의적으로 평가했다.

胡適의 시 중에서 〈上山〉을 예로 들어 그의 시에 나타난 낙관주의적

17) 朱自清, 〈中國新文學大系詩集導言〉, p. 1.

면모를 살펴 본다. 이 시는 구호를 서술하듯 평범하고 희망적인 단어를 동원하여 인생이 고달픈건 사실이지만 노력하면 그 끝엔 낙원과 다름없는 아름다운 세계가 펼쳐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인생을 긍정적으로 보고 가르치려는 지극히 계몽주의적인 발상의 시라고 하겠다.

“영차! 영차! 위를 보고 올라 가자!”
 뒤돌아 보지 말고, 흐르는 힘도 내버려 두고,
 있는 힘껏 올라 가자.
 “거지반 왔구나! 노력하자! 어서 어서 올라가자!”
 길이 없더라도,
 바위틈에 얹힌 등나무 넝쿨을 잡고서,
 암석사이 뼈쪽 솟은 관목들을 딛고서,
 한걸음 한걸음 천천히 올라 가자.
 “조심해라! 힘내! 위를 보고 올라가자!”
 가지에 걸려 웃소대는 젖어지고,
 두 손은 가시 절린 상처투성이 되지만,
 다른 사람 가보지 않은 새길을 열었다네.
 정상은 과연 드넓구나.
 아름다운 들꽃이 미소 짓고,
 그들을 드리운 나무들도 날 반기네.(〈上山〉의 전반부)
 (“努力! 努力! 努力望上跑!”
 我頭也不回,汗也不擦,
 命的爬上山去。
 “半山了! 努力! 努力望上跑!”
 上面已沒有路,
 我手攀着石上的青藤,
 脚尖抵住岩石縫裏的小樹,
 一步一步的爬上山去。
 “小心點! 努力! 努力望上跑!”
 樹砸破了我的衫袖,
 荆棘刺傷了我的雙手,
 我好不容易打開了一條路爬上山去。
 上面果然是平坦的路,
 有好看的花, 有遮陰的老樹.)¹⁸⁾

18) 胡適, 〈嘗試集〉, pp. 122~123.

(2) 經驗主義

胡適은 '詩的經驗主義'를 주창했는데, 이는 그가 詩作이란 행위를 어떻 게 생각했는가 알 수 있는 극명한 예이다. 그는 시에 있어서도 想像보다는 실제생활의 묘사에서 시의 주제를 찾길 원했던 실용주의적 사고를 지녔다. 자작시 <夢與詩>의跋文에서 그는 아래와 같이 말한다.

내가 말하는 '詩的經驗主義(Poetic Empiricism)'란 이상을 꿈꾸더라도 경험에 밀바탕 되어야 하는 것처럼, 시를 쓰는 태도 또한 그러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인의 가장 큰 결점은 경험이 바탕되지 않은 시를 쓰려 하는 것이다. 북경의 한 절은 시인은 "가락국수가 한가닥 한가닥씩 입속으로 보내진다.(棒子麵一根一根的往嘴裡送)"라고 읊었고, 상해의 어떤 대시인은 "누에는 어제 두번 잠을 잤고, 내일은 세번 잠을 잘거라네. 누에 눈에 사람들은 잠도 안자네.(昨日睡二民, 明日睡三民, 睡眼人不眠)"라고 표현하였다. 가락국수먹는 일이나 양잠이 인간사에 어찌 희귀한 일이겠는가? 그러나 이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그 일을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결코 적당치 못하다. 하물며 시문 쓸에 있어서랴?¹⁹⁾

五四運動 이후 한동안은 사실에 근거하여 作詩하는 自然主義적 풍조가 유행했었다. 胡適의 시에는 景物을 노래한 시가 특별히 많은데, 아마도 거기서 영향받은 듯하다. 그는 자신의 '詩的經驗主義'를 아래와 같이 시로서 표현하기도 하였다.

취한 후에야 술이 진함을 알고,
사랑한 후라야 情이 깊었음을 안다:----
네가 나의 시를 노래할 수 없음은,
너의 꿈을 내가 대신할 수 없음과 같은것.(<夢與詩>에서 결론)
(醉過才知酒濃,
愛過才知情重:----
你不能敘我的詩
正如我不能敘你的夢)²⁰⁾

19) 《嘗試集》, p. 151.

20) 上同, pp. 151~152.

(3) 說理, 人道主義

1919년, 胡適이 〈談新詩〉를 발표하여 신시가 가야할 방향을 제시한 직후부터 중국에선 說理의 시대가 도래했다. 갈 길 몰라 방황하던 이들이 자연스레 이 추세에 영합함으로써 說理詩는 갑자기 유행하는 풍조가 되었다. 그다음, 1926년 경에 이르러서야 차츰 기세가 꺽이게 되었다. 그러나 徐志摩 등 몇몇 시인의 시에는 여전히 그 혼적이 남았는데, 이는 胡適의 白話詩에서 영향받은 바가 너무 크기 때문이었다. 당시 胡適과 쌍벽을 이루던 이론가 周作人은 說理詩가 너무나 투명하고 막아서 곱씹어볼 여운이나 향기가 남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²¹⁾ 그는 說理詩의 이런 결점을 보완하여 1918년 이후에 ‘倡人主義的人間本位主義’를 표방한 人道主義문학을 제창했는데, 이 또한 시대사조의 반영물로 신시의 중요한 주제가 되었다.²²⁾ 사실 說理詩와 人道主義문학은 내용에 있어선 서로 다를 바 없어서 胡適과 周作人은 서로를 적극 지지하는 한편, 그 사상에 부응하는 〈人力車夫〉·〈你莫忘記〉 등의 시를 발표했다. 胡適은 직접적으로 說理詩를 주창한 적이 없었지만, 그의 시에 무슨 主義나 思想이 많이 출현해서인지 이런 류의 시라야 그의 대표작처럼 인식되고 있다. 胡適의 詩가 예술적인 측면에선 당시에도 긍정적 평가를 받지 못했음에 비해 說理詩는 시단에 광범위한 영향을 끼쳤는데, 이는 그의 시가 지닌 선구적 의의와 시사적 내용 때문으로 보인다. 人道主義적 내용을 표현한 그의 시 〈人力車夫〉를 예로 들어보겠다.

“인력거! 인력거!” 부르자마자 날듯이 달려온다.

車夫를 본 순간 손님은 가슴이 쪘릿하다.

“너 올해 몇살이나 됐니? 언제부터 차를 끌었지?”

— “열 여섯이요, 삼년 끌었구요, 그러니 걱정하실건 없어요.”

“네 나인 너무 어리다. 가슴아파서 네 차를 탈수 없구나.”

車夫는 애원한다. “전 반나절이나 한푼도 못벌어서 춥고 배고파요.

21) 朱自清, 〈中國新文學大係詩集導言〉, p. 2.

22) 周作人, 〈人的文學〉, 〈五四新文學運動論戰集集編〉下冊, p. 31.

어르신네 착한 마음은 제 허기진 태를 채워주지 못해요.
 내 나이 어려도 경찰은 눈감아 주거든요.
 왜 영감님만 유별나게 착한척 굴어요?"
 ("草子! 草子!" 草來如飛。
 客看草夫, 忽然中心酸悲。
 客問草夫, "你今年幾歲? 拉草拉了多少蒼?"
 草夫答客, "今年十六, 拉過三年草了, 你老別多疑。"
 客告草夫, "你年紀太少, 我不坐你草, 我坐你草, 我心慘悽。"
 草夫告客, "我半日沒有生意, 我又寒又餓。
 你老的好心腸, 錯不了我的肚餓皮,
 我年紀小拉草, 賽奈還不管, 你老又自謹?"²³⁾)

이 시는 기교상으론 두드러지는 곳이 없지만, 사회의 참상을 평범한 언어로 명료하게 그려냈다는 점에서 胡適詩의 說理的 면모를 잘 드러낸다. 시의 앞부분에서 “경찰법령으론 십팔세 이하, 오십세 이상은 인력거를 끌 수 없게 되어 있다.”라는 해설을 명시하여 이 시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게 해 준다. 춥고 배고픈 한 소년 인력거꾼의 말을 통해 어설픈 감상이나 동정은 진짜 인도주의가 아니라고 설파함으로써 사회의 어두운 측면을 예리하게 절러보는 그 나름의 사회적 안목을 보여주는 시이다.

(4) 愛情詩

朱自清은 “중국에는 情詩가 결핍되어 있다. 있다면 단지 憶內·寄內의 은유적인 작품들 뿐이고 솔직하게 연애감정을 고백한 작품은 거의 없으며, 사랑을 위해 사랑을 노래한 시는 더더욱 없다”²⁴⁾라고 말한 바 있다. 胡適의 시는 원래 감정보단 논리가 앞서 ‘寡情’이란 평가가 있다. 만약에 ‘情’을 단지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 혹은 ‘愛情’이라고 말한다면, 그의 시가 寡情하단 판단은 틀리지 않다. 그러나 이 ‘情’자를 지식인이 역사와 사회에 대해 느끼는 사명감과 결부지어 생각한다면 ‘家國之情’의 발현은 인간의 정리에서 가장 큰 실천이 되므로 《嘗試集》은 열정과 뜨거운 사

23) 《嘗試集》, p. 85.

24) 朱自清, 〈中國新文學大系詩集導言〉, p. 4.

랑이 충만한 시집이라고 말할 수도 있게 된다. 예를 들어 〈孔丘〉·〈文學篇〉·〈人力車夫〉·〈老鴉〉·〈樂觀〉·〈死者〉나 《去國集》 안의 〈沁園春〉·〈誓詩〉 같은 시편들은 모두 지식인의 적극적인 참여의식을 강조하고 있는데, 평자에 따라선 이 시들을 情詩로 간주하기도 한다.

胡適에겐 남녀간의 애정을 노래한 사랑의 시도 없진 않다. 하지만 그의 시에는 徐志摩나 郁達夫의 시처럼 한 여인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치려는 哀怨한 아름다움이 없다. 그의 情은 감춰져 드러나 있지 않고, 깊어서 격정적이지도 않다. 그가 張慰慈의 부채에 써줬던 “사랑의 대가는 고통, 사랑의 방법은 그 고통을 참는 것.”이란 구절은 사랑에 대한 그의 생각을 대변해 준다. 그의 이런 보수적인 관념 때문에 《嘗試集》엔 노골적인 豈情詩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사랑에 관한 느낌이 실린 濟艷한 小詩는 몇 수 있다. 그리고 그가 번역한 시는 情詩가 특히 많아 《嘗試集》에 4수, 《嘗試後集》에 5수가 실려있다. 예를 들어 《嘗試集》에 실린 스코틀랜드의 여시인 앤 린제이(Anne Lindsay)의 〈老洛伯 Auld Robin Gray〉, 미국 시인 사라 티스대일(Sara Teasdale)의 〈關不住了 Over the Roofs〉, 페르시아 시인 오마르 카이암(Omar Khayyam)의 〈루바이야트 Rubaiyat〉에서 한 귀절을 번역한 〈希望〉이나, 《去國集》에 실린 〈墓門行〉 같은 시들이 내용상 情詩에 해당한다. 《嘗試後集》에 실린 〈你總有愛我的一天〉·〈別離〉·〈譯薛蘋的小詩〉·〈月光裏〉·〈譯莪默詩兩首〉들도 情詩로 볼 수 있겠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胡適 자신이 창작한 시는 이성적인 시가 많은데 반해 번역시는 情詩가 많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창작이 立言의 사업이어서 많은 것을 생각하고 써야하는 반면, 번역이란 자신을 드러낼 필요없이 단지 좋아하는 작품을 고르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사실 그의 譯詩에 드러난 哀怨이나 戀情은 모두 상당히 깊고 강하다. 여기에서 유추한다면 胡適은 결코 寡情의 사람이 아니며 평소에 감정을 자유롭게 발산하지 못하고 사는 억압된 심리의 시인이란 해석도 가능하다. 그의 많은 처염하면서도 감동적인 譯詩들은 胡適이 감정 생활에서 느껴오던 억눌림을 해소하기 위해 선택되었고, 또 상당 부분 해소시켜 준 것으로 보인다.

총괄해 말하자면, 胡適은 愛情詩의 경지를 고백의 차원으로까지 끌어

올린 것으로 평가된다. 朱自清에 의해 “재미의 결반이 문자의 굴절을 음미해 보는데 있다.”라고 평가된 〈應該〉 시도 감출수 없는 사랑의 정념을 시에 기탁해 풀어낸 성공적인 작품의 하나로 꼽힌다. 이 시는 서로를 간결하게 원하면서도 그 사랑을 완성시킬 수 없는 두 연인의 독백과 대화를 통해 안타까운 사랑의 고통을 간결하면서도 단순한 시어로 엮어내고 있다.

그는 나를 사랑할지도 모른다,--아직도 날 사랑하는 것 같다.--
 그렇지만 그 사람은 언제나 자기くん 사랑하지 말라고 권유하며,
 항상 나를 나무란다:
 오늘도 눈물 글썽이며 날 바라보다가,
 “어떻게 나를 아직도 생각하지?
 날 웃잇고서 어떻게 그 사람을 대할수 있소?
 나를 진실로 사랑한다면,
 그 마음 그대로 당신의 그 사람을 사랑하라,
 날 향한 심경으로 그를 대해야 하지 않겠소?”
 그의 말은 구구절절 모두 옳다:----
 하느님 도와주세요!
 저는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됩니다!
 (他也許愛我, ----也許這愛我, ----
 但他總勸我莫再愛他。
 他常常怪我;
 這一天, 他眼淚汪汪的望著我。
 說道: “你如何這想著我?
 想著我, 你又如何能對他?
 你要是當真愛我,
 應該把愛我的心愛他
 應該把待我的情待他。”
 他的話句句都不錯:----
 上帝幫我!
 我‘應該’這樣做!)²⁵⁾

3. 胡適詩의 특징과 결점

25) 〈嘗試集〉, pp. 110~111.

胡適의 시에서 가장 돋보이는 점은 문자가 流利하고 清淺하면서도 때로 날카로운 예지가 빤툳인다는 점이다. 가장 뛰어난 몇몇 시들은 逸趣 혹은 韻緻가 충일하고 있어, 周策縱은 胡適의 시가 “쉽고 평범한 언어 안에서 言外의 悠遠한 의미를 表達했으니, 이는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小詩小詞의 뛰어난 전통을 계승한 것.”²⁶⁾이라고 칭찬하기도 했다. 이런 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좋은 시라고 알려져 있는 작품은 대체로 아래와 같다. 舊體小詩로는 〈胡蝶〉·〈中秋〉·〈江上〉·〈寒江〉·〈小詩〉·〈紀夢〉·〈秋柳〉가 있고, 小詞로는 〈生查子〉·〈如夢令〉이 있으며, 中謂의 〈百字令〉·〈臨江仙〉·〈水龍吟〉 및 몇수의 〈沁園春〉이 있고, 그 밖에 新詩에 있어선 〈一念〉·〈鵠子〉·〈人力車夫〉·〈老鶴〉·〈三溪路上大雪裏一個紅葉〉·〈一顆星兒〉·〈威權〉·〈樂觀〉·〈努力〉·〈示威〉·〈蔚藍的天上〉·〈一笑〉 등이 꼽힌다. 胡適은 쉬운 白話만 글라 쓰고 이미지보다는 사상의 전달에 신경쓰긴 했어도 시의 특질이 간결한 어휘구사와 아름다운 이미지의 창출에 있다는 것을 도외시한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그의 시에서도 곧잘 인상적인 구절을 읽어낼 수 있는데, 특히 〈蔚藍的天上〉에 나오는 “짙푸른 하늘 여기저기, 흰 구름 두세 조각 흘러가네.(蔚藍的天上, 這裏那裏浮著兩三片白雲)”같은 구절은 江淹의 “달은 이슬에 회게 비끼고, 세월은 하염없이 흐른다.(明月白露, 光陰往來)”라는 명구의 이미지를 연상시켜주기도 한다.

그러나 胡適의 詩는 대체로 ‘깊고 미묘하여 끔없이 우리너는 의미(幽深微妙, 無盡意味)’를 최고 가치로 치는 전통시의 境界를 놓고 함께 논하기엔 그다지 적당치 않다. 1936년 陳子辰에 의해 ‘胡適之體’로 명명된 胡適文體의 특징은 그 자신의 설명에 의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로 뜻이 명백할것(清楚明白), 둘째, 이미지에 유의할것(注重意境), 셋째, 단어의 선택, 가감에 신경쓸것(能剪裁), 네째, 조직과 격식이 있을 것(有組織有格式) 등인데, 이는 다른 사람의 시에 비해 胡適의 詩가 갖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된다. 胡適 자신의 부연설명을 본다.

26) 周策縱, 〈論胡適的詩〉, 〈胡適雜憶〉, p. 228.

나는 십년쯤 후라면 (백화시의 창작이) 대체로 문제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나는 이미 이십여년이나 시를 썼었고 늘 몇가지 규율로써 자신을 묶어 왔다. 이른바 어떤 시인의 문체란 것은 내가 보기엔 그 시인이 평소 스스로 계약하여 준련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내가 시를 쓸 때엔 아래와 같은 몇가지 약속을 지키고 있다. 첫째, 말이 명확하고 군더더기가 없을 것, 둘째, 자료를 사용할 땐 반드시 출사선헤 쓸 것, 셋째, 이미지는 소박하고 실재적일 것 등이다. 이러한 원칙들은 소극적으로 일체의 부박한 언사나 어거지로 끼워 맞춘 문장을 쓰지 말자는 데 그 목적이 있고, 적극적인 면으로는 가장 경쾌한 소재를 잡아 가장 간결한 언어로 표현해 내고자 함에 있다.²⁷⁾

胡適은 위의 설명과 합치되는 시를 이상적인 시로 여겼다. 그러나 이상은 대로 현실과 어울리지 못하고 이상으로 남을 수 밖에 없기도 하다. 쉽고 명확한 언어로 시를 쓰겠다는 의도는 본래 나무랄 일이 아니겠지만, 우수한 시인이라면 쉽고 명백한 언어라도 '시의 언어'로 바꿔서 무궁한 의미를 함유하게 만드는 기술을 가져야 하며, 또 그렇게 써어져야만 좋은 시로 인정받게 마련인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명백하고 쉬운 언어로만 시를 썼다고 하더라도 그 시가 반드시 명백하고 쉬운 시일 수만은 없으며, 어떤 경우엔 가장 불명확하고 어려운 시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胡適의 시는 신시평론가들에 의해 시의 품격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작품들로 폄하당하기 일쑤였는데, 이는 모두 '胡適之體'를 고수하려는 마음이 너무 강했기 때문이었다.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살 수 없듯, 지나치게 명백한 문체는 여운을 남기지 못하므로 오래 읽히는 글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글의 짜임에 주의하다 보니 자연스런 遠韻가 감소했고, 평범·실재에 지나치다 보니 글의 의미가 옛어져서 감동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嘗試集》에는 전래의 형식적 장애를 뛰어 넘는 작품도 많지만, 舊詩詞에서 탈태한 작품들도 적지 않다. 胡適 자신도 이런 작품들은 매우 싫어해서 스스로 '舊詩를 썼어낸 것' 혹은 '詞曲의 맛과 韵를 벗어나지 못했다.'²⁸⁾라는 말로 자평하고 있다. 실제로 그의 시는 오침언 句法의 사용이 많아서 언어의 자연성이 떨어지며, 음절상으로도 舊詩의 韵이 작용

27) 胡適, 〈談談胡適之體的詩〉, 《嘗試後集》, pp. 66~74.

28) 胡適, 〈嘗試集再版自序〉, p. 35.

하여 시의 질료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화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다. 胡適 자신도 이런 단점을 치유하기 위한 처방책을 강구하는 한편, 이런 점들이 그의 신시가 갖고 있는 결점이라고 자복했지만, 그가 舊詩詞에 침잠하여 그 자양을 흡수했기 때문에 새로운 형식을 창출해낼 수 있었음도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는 “만약에 진짜 신시를 짓고 싶다면 白話文字를 충분히 사용하려 한다면, 白話文法과 白話의 자연적 리듬을 사용하여 長短이 들쑥날쑥한 白話詩를 짓지 않으면 안된다.”²⁹⁾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해야만 시의 문체를 해방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그가 명명한 이론 바 ‘詩體의 大解放’은 자유를 속박하는 일체의 형식을 타파하고 “할말이 있으면 표현하고 싶은 방식으로 토해내는 것。(有什麼話, 說什麼話, 話怎麼說, 就怎麼說)”으로 《嘗試集》의 第二編은 이런 방향을 목적하고 쏟아졌다.

胡適의 신시는 流利平實하여 수사법상의 변화는 다양하지 못하다. 一例로 그가 가장 많이 범하는 잘못의 하나가 맷음구의 마지막 운자(停身韻)에 ‘了’자를 많이 쓴다는 것이다. 周策縱이 1922년에 발간된 《嘗試集》 3 판과 1964년에 영인되어 나온 《詩歌手跡》을 갖고 통계내 봤더니, 68수의 선시중에서 ‘了’자로 끝을 맺은 시행이 101행이나 되었다. 이는 평균 잡아 한 수의 시에서 거의 두번 씩이나 ‘了’운을 썼다는 얘기로, 그의 창작방법이 그다지 다양하지 못했다는 반증이 된다 할 것이다.³⁰⁾

이렇게 胡適의 백화시창작에서 상당한 문제거리가 노정되는 까닭은 그의 백화시가 嘗試라는 말 자체의 올림이 의미하듯이, ‘백화로도 시를 지을수 있다’라는 가설을 입증하기 위한 일종의 실험이란 생각에서 쓰여졌기 때문이다. 胡適은 그의 시에 대해 “먼저 ‘八不主義’란 문학이론을 세워 놓고 실제의 창작으로 그 이론을 증명하려 했었기 때문에, 그의 시는 자기 이론의 구속을 받을수 밖에 없었다.”³¹⁾라는 비판을 감수해야만 했다. 그는 시를 쓸 때 항상 자신의 시에 내용이 있는가?(須言之有物)에 유의했으며, 고인을 모방하는 폐해를 저지르진 않았는가(不摹倣古人) 살펴야 했다. 그 밖에도 문법을 강구해야 했고(須講求文法), 의미없는 넋두리를 피

29) 《嘗試集自序》, p. 31.

30) 周策縱, 〈論胡適的詩〉, p. 232.

31) 周質平, 〈胡適與魯迅〉, p. 112.

해야 했으며(不作無病呻吟), 상투적이고 낡은 표현들은 제거하고(務去類語), 전고를 쓰지 않고(不用典), 덧귀를 쓰지 말며(不諱對仗), 피하지 않아도 좋을 속어들을 피하진 않았는지(不避俗字俗語) 살펴야 했다. 이와 같은 현상은 胡適이 舊詩의 성조와 격률을 타파하는 詩體의 해방에 주력하면서도 무의식중에 자기의 이론에 갇혀 벗어나지 못했음을 말해준다 하겠다. 산넘어 산(才破一障,又立一障)이란 속담으로 표현될수 있는 이런 상황 이야기로 실험정신이 제일의 모토였던 試試詩人에겐 어쩔수 없었던 한계가 아닌가 한다.

五. 胡適新詩의 영향

胡適 이후로 시단에는 자유가 존중되고 평민화를 지향하는 경향이 뚜렷해졌지만, 백화시의 모든 난관이 제거된 것은 아니었다. 백화를 제창했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신시를 지어보려고 시도했었지만 성격은 대체로 신통치 않았었다. 백화시를 짓는다는 것은 원래 백화소설을 쓰는 것과는 다른 성질의 것이었다. 백화소설은 본래 유구한 전통을 갖고 있어서 그 가치를 제고시킨다거나 서양소설의 새로운 기교를 받아들이는 것이 용이했지만, 舊詩의 영역에선 신시를 쓰는 시인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요소가 아주 적었다. 그래서 백화시 시인들에겐 전통을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까 하는 문제가 늘 선결과제가 되었다. 어떤 사람은 전통을 완전히 부정해 버리기도 했고, 혹자는 전통을 받아들여 현대시의 어휘나 리듬에 적합하게 어느 정도 개변시킨 다음에 사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舊詩의 성취가 너무나 휘황찬란하고 다채로운 나머지 신시의 시인이 어느 방면을 선택하든지간에 힘은 힘대로 들지만 성과는 기대한 만큼 거두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었다.

상황은 비록 그러했지만, 胡適의 신시에 대한 실험이 당시 문인들에게 끼친 영향은 심대해서 신시에 있어선 소설가 魏迅조차도 胡適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한다. 魏迅은 《新青年》 잡지 4권5호에 〈夢〉·〈愛之神〉·〈桃花〉라는 3수의 백화시를 唐埃라는 필명으로 발표했고, 그 이후로도 몇편을 더 발표했다. 몇년 후에 그는 신시의 초창기를 회상하며 아래와

같이 말했다.

사실 나는 신시 창작을 좋아하지 않았다.—古詩 짓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단지 그 때는 시단이 너무 적막해서 옆에서 변죽이라도 울려 관심을 끌어주려 했을 뿐이었다. 조금 있으니 시인이라 칭하는 무리들이 대거 출현하기에 그 때부터 손을 셋고 시쓰기를 그만 두었다.³²⁾

위와 같은 중언에서 胡適이나 魯迅같은 당대의 지식인들은 신시를 좋아했다거나 자신의 재능을 자랑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신문학에 대한 사명감 때문에 솔선해 창작했음을 알수 있다. 만약에 그들의 노력이나 분발이 없었더라면 중국의 신시는 그렇게 빨리 성장하고 발전하진 못했을 것이다.

어쨌든 《상시집》은 출판되자 마자 대단한 호옹을 얻었다. 胡適은 《舊試集》의 4판 서문에서 이 책이 이년 사이에 일만부가 팔렸다고 적고 있다. 중국이 공산화되기 전에는 “그의 詩는 다른 사람들에게 모방의 대상이 되었고, 소학교나 중등학교의 국어교재로도 編選되었다. 가락이 불여 족 사방으로 퍼져 불려졌으며, 수많은 독자들에게 광범한 영향을 주었다.” 33) 《舊試集》이 출판된 후 이처럼 관심을 끌자 신문학의 반대자들은 당황하며 그 비판의 강도를 한껏 높이고 나섰다. 이만여자에 달하는 胡先驥의 논문 〈評舊試集〉에선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다.

胡君의 《舊試集》은 죽은 문학이므로 반드시 죽고 반드시 스러질 것이다. 살아있는 문자를 썼다는 이유 하나 만으론 불멸을 얻을 수 없다. 사물이 죽는다는 것은 그 정신에 이상이 생기고 말이 도리에서 벗어난 것으로 알수 있는데, 胡君 무리의 시는 망령되고 저리덜렬함이 극단에 이르렀으니, 이것은 바로 저들이 조만간 반드시 죽는다는 징조인 것이다.³⁴⁾

사실 《舊試集》은 제한된 몇 수의 시만이 형식상으로 舊詩詞의 제한을 벗어나 신시로서 올연히 썼을 뿐이고, 내용에 있어서도 단지 몇 수 만이

32) 魯迅, 〈集外集自序〉, 《魯迅全集》 제7책, p. 4.

33) 林彥, 〈胡適의 試舊集批判〉, 《胡適思想批判》 제4권, p. 192.

34) 胡適, 〈舊試集四版自序〉, p. 50에서 재인용.

현상에 대한 불만을 토해낸 것이다. 그런데도 복고주의자들이 보기에는 胡適의 정신상태가 의심스러울 정도의 극단적인 파격으로 여겨진 것이다. 胡適이 胡先驥의 문장을 읽고 나서 “처음 헤었을 때는 나를 욕하는 말 같았지만, 다시 읽고보니 지나칠 정도의 과분한 찬사로 느껴졌다.”³⁵⁾라고 말한 것도 《答試集》에 대한 반향이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과대포장 된데 대한 조크라고 볼수 있다. 어떤 평론가는 “胡適의 백화시는 사상, 내용 혹은 築作技巧를 막론하고 어느 한 군데도 뛰어난 구석이 없다. 다만 그의 시집은 문학혁명 아래 첫번째 시집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 공이 있을 따름이다.”³⁶⁾라고 말하면서 胡適의 시가 단어의 선택이나 문장의 다큐기 등에서 모두 미성숙하며 詩意 또한 모자란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胡適의 《答試集》은 신문학 초기의 미숙과 결함 때문에 반대파의 집중적인 공격대상이 되기도 했다. 예를 들어 “說理는 남음이 있지만, 깊은 느낌은 부족하다。(說理有餘,深情不足)”라든가 “처음으로 제창한 공은 있지만, 창작의 능력은 부족하다。(有提倡之功,而無創作之力)”등은 그의 시집에 대해 자주 가해지는 비판이다.

胡適의 시가 비록 상당한 결점들을 내포하고 있었지만, 《答試集》은 출판 이후 지속적으로 신시를 제창하는 역할을 했다. 胡適은 또 그의 다른 글들에서 신시가 民歌를 학습함으로써 부족한 방법론을 보충할 수 있다고 하는 등 신시의 작법에 대한 선구적인 견해들을 제시함으로써 신시가 자리를 굳히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했다. 게다가 그는 다른 시인들의 신시를 남다른 애정을 갖고 대했으며, 그들을 위해 서문이나 평론을 써주는 지속적인 지원과 선전활동을 아끼지 않았다. 그의 이런 노력은 확실히 “신시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었고, 신문학을 위해 새로운 진지를 구축”³⁷⁾할 수 있도록 하였다.

胡適의 이같은 노력은 《答試集》이 신문학의 제창자, 찬조자들에게서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바탕이 되었다. 《答試集》은 신시를 개척하는 과정에서 길을 여는 선봉 역할을 함으로써 뒤에 오는 이들을 부르는 작용을

35) 上同.

36) 耿雲志, 〈胡適與五四時期新文化運動〉, 《胡適研究論稿》, p. 3.

37) 耿雲志, 〈論胡適在文學革命運動中的作用〉, 《胡適研究論稿》, p. 58.

했다고 말할 수 있다. 陳子辰은 “《嘗試集》의 진짜 가치는 신시의 규범을 제시했다거나 사람들이 그 시를 읽고 쾌감을 느끼게 함에 있지 않고,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놓고 신시를 창조할 용기를 갖게한 데 있다.”³⁸⁾라고 까지 말했다. 이러한 면을 이해한다면 요즘 사람들이 胡適의 시를 현대의 문학비평기준을 갖고 분석하려는 경향은 어느 정도 지양될 수 있을 것이다. 문학발전이란 각도에서 볼때 육칠십년 전의 조잡한 그 시들은 문학의 신기원을 세우는 이정표의 역할을 정말로 홀륭히 수행했던 것이다.

그러나 신시가 어느정도 자리를 잡게 되자 또다른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지금에 이르러선 신시에 사용된 언어가 舊詩보다 더 어렵고 난삽하게 됐는데, 일반 시민들이 그 오묘함을 풀어낼수 없음은 물론이고 전문가나 학자라도 箋註에 의지하지 않고는 그 대의를 풀어내기 어렵게 되었다.”³⁹⁾라는 중언이 바로 그것이다. 위와 같이 현대시의 언어는 점점 또 하나의 ‘文言’이 되어버려, 대중의 口語나 널리 통행되는 서면어를 시에 반영하지 못하고 소수의 살롱 시인들 만이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는 특수한 영역으로 굳어지는 경향이 있다. 언어의 조탁에서 빚어지는 시의 아름다움이나 고립이라는 중국문자의 특성을 십분 감안하더라도, 이는 중국 문학사에서 매번 변혁을 自招했던 ‘문체의 고식화’ 현상이 신시의 영역에서도 다시 살아나고 있음에 틀림없다. 胡適이 아직까지 살아있다면 이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알순 없지만, 문학을 시대에 대한 사명감 차원에서 생각한 그로선 또 한번의 질타와 비판이 낭자할 것 같다. 현대 중국시의 입장에서 본다면 胡適이 舊詩를 타도할 때의 신선한 기백과 혁명 정신이 다시 한 번 필요하게 되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參 考 文 獻

胡適, 《胡適文存》, 臺北, 遠東圖書公司, 1985.

38) 陳子辰, 《最近三十年中國文學史》, 劉心皇 《現代中國文學史話》, p. 227에서
제인용.

39) 周貢平, 〈讀胡適的嘗試集〉, 《胡適與魯迅》, p. 104.

- 胡適,《胡適選註的詞選》,臺北,遠流出版公司,1988.
- 胡適,《中國新文學運動小史》,臺北,胡適紀念館,1974.
- 胡適,《嘗試集》,臺北,遠流出版公司,1986.
- 胡適,《嘗試後集》,臺北,遠流出版公司,1988.
- 胡適,《胡適留學日記》第四冊,臺北,遠東圖書公司,1985.
- 胡適編,《五四新文學論叢彙編》,臺北,長安出版社,1976.-
- 臧克家,《中國新詩選》,北京,中國青年出版社,1956.
- 朱自清編,《中國新文學大系》詩集,臺北,崇文出版社,1990.
- 梅光迪,《梅光迪文錄》,臺北,中華教育委員會,1956.
- 林語堂,《中國現代文學史話》,臺北,正中書局,1971.
- 唐德剛,《胡適雜憶》,臺北,傳記文學出版社,1987.
- 周質平,《胡適與魯迅》,臺北,時報文化公司,1988.
- 三聯書店編輯,《胡適思想批判》第四冊,北京,三聯書店,1985.
- 耿雲志,《胡適研究論稿》,四川,人民出版社,1985.
- 劉心皇,《現代中國文學史話》,臺北,正中書局,1971.
- 魯迅,《魯迅全集》第七冊,臺北,谷風出版社,1989.